

한중수교 20주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의 길

이 기 현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2-35

8월 24일은 한국과 중국이 정식 수교를 맺은 20주년 기념일이다. 올 초부터 역사적인 기념일을 위해 각계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치러졌지만, 애초의 기대만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친구의 연을 맺고 지내 온 지 어언 20년, 서로에 대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시기인 것 같은데, 절친이 되기에는 아직 여정이 많이 남은 것 같다.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그 면면이 화려하다. 수교 당시에 비해 양국 간 교역액은 무려 30배 이상 증가했고, 양자간 FTA도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로 출국하는 한국인 3명 중 1명이 중국을 방문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5명 중 1명이 중국인이라는 통계가 말해 주듯,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베이징 대형 스타디움에서 K-POP 스타들에 열광하는 중국인 팬들이 있고, 서울 명동의 주요 백화점들이 세일을 할 때면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들 때문에 교통이 마비될 정도라고 하면 한국에게 중국이 또한 중국에게 한국은 중요한 친구임이 분명하다. 정치적으로도 서로 적대국 관계에서 상호간 중요한 논의를 협의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기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10번 이상 만났고, 민감한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정기적인 국방 전략 대화가 열릴 정도로 관계가 성숙되었다.

그러나 이미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친구 맺기가 우리에게 여전히 불안하고 버거운 작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이다. 중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우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비호하는 행보를 해왔다. 물밑으로 북한에 상당한 경제지원을 제공했고, 심지어 북한인권이나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북한의 편을 드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북한의 비행을 감싸고만 도는 중국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왜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우리의 협력이 힘든 것일까? 우선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이해 때문이다. 우리에게 북핵 및 군사도발은 안보상의 직접적인 위협이지만, 중국에게는 그리 큰 위협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주변국 다수가 이미 핵보유국이며, 설령 북한이 핵을 가지더라도 감히 자국을 공격할 것이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안보적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군사적 모험이 동북아 국제질서의 불안정을 야기하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에게 북핵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북한의 붕괴이다. 북한체제의 불안정이 야기할 문제들은 한국에게는 필연적으로 떠안아야 할 당위적 과제일지 모르나,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개입에 대한 우려와 대량 난민사태 등 안보적·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 줄 최악의 상황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확대하고, 김정은 정권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직간접적인 노력을 한 것도, 또 탈북자 문제에 있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이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미국 때문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변화의 추이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 자국을 봉쇄하거나 포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경계해 왔고, 그 전략에 한국을 포함한 자국의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아 왔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동맹 체제 강화를 중국에 대한 포위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은 동북아의 세력균형 차원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시켜 왔다. 이렇게 본다면,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안보전략은 구조적으로 중국과 갈등이 확대될 소지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의 군사위협 변수가 증가하면, 세력균형 논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한중관계에 작용하면서 그동안 구축해 놓은 협력의 탑에 쉽게 금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까지는 중국에 대한 이해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통일은 현 동북아 구조의 틀을 깨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최소한 중국이 우리의 노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조건이다.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우선, 우리의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중국과 협력하는 궁극적 목적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중국 역시도 북한의 돌출행동이 자국의 이익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핵 문제는 한국, 일본 특히 대만 등 주변국들의 핵보유를 가속화시키는 핵도미노 현상을 야기할 수 있고, 북한의 붕괴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6자회담을 중시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설득에 적극적이다. 여기서 우리의 이해와 일치하는 포인트가 생긴다. 북핵 폐기를

위해 중국카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북중 경제협력 활성화 분위기 역시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이해이다. 다수는 아니겠지만 중국의 주요인사들 중에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편승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한다. 우리가 의도하건 안하건 그들이 우리를 오히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과 안보적 협력을 증진시키면서도 동시에 한미동맹과 충돌하지 않게 하는 영민한 전략과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대중 외교의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북한 문제 등에 있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중국은 ‘핵심이익’이라는 용어를 통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과도 충돌을 불사한다. 우리에게도 ‘핵심이익’이 있어야 한다. 북한의 군사도발, 재외공관 탈북자 송환, 김영환씨 사건 등은 우리의 주권과 인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상황에 따른 전략외교를 할 대상은 아닌 것이다.

넷째, 주변국과의 연대를 통한 힘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은 이해와 설득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과 역량이 강하다는 것을 중국이 인식할 때 대등한 친구가 될 수 있다. 꼭 혼자 할 필요는 없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주변국들과의 연대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나 강대국에 편승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려 예상치 못한 후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가 강대국 외교에 힘을 쏟아왔다면, 이제는 중국의 주변국 혹은 중진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과 힘겨루기에서 좀 더 대등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과 양자 간에도 끊임없는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주 만나야 서로 이해하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위급 인사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정기적인 대화채널이 가동되어야 한다. 미중관계가 갈등의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협력이 유지되는 것은 고위급 대화채널이 잘 가동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현재의 외교, 국방 전략대화보다 한 단계 더 나아 간, 북한 문제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만드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차기지도부와의 접촉도 늘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베이징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차세대 지도자로 떠오른 시진핑과의 접촉이 많지 않았던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정치·경제 각계의 차세대들과도 양국관계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채널들이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너무 많은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철저히 자국의 이익, 즉 실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결국 북한의 변화건, 남북관계 개선이건, 통일이건 간에 이 문제는 중국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몫이다. 중국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고,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것이 있다. 같음은 서로 확대 발전시키고

다름은 나중에 이야기하자라는 말인데, 서로 환경이 다른 친구끼리 싸움 없이 잘 지내기에는 이 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불리하고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이유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애써 무시하고 덮어버리려는 부작용이 있다. 중국과 친구가 된지 20년이다. 서로 다름에 대해 너무 참으면 좋은 친구 사이도 금이 가기 마련이다. 이제는 같음은 더욱 발전시키고 서로의 다름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구동축이(求同縮異)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서로의 민감한 상처나 자존심은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말이다.